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일본의 영케어러・히키코모리・니트 지원 경험을 청취하고 자료 수집 및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과제명

[수탁26-081-00]제1차 위기아동청년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출장기간

2026.11.8.(일)~11.12.(목)

□ 출장국가(도시)

일본(도쿄)

□ 출장자

김성아 연구위원, 변소연 연구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11/8(일)	국가 간 이동	대한민국(인천) -도쿄(나리타)		출국
11/9(월)	일본(도쿄)	1. 세타가야 지역공생의 집 「오카씨의 집 TOMO」 2. 세타가야 청년종합지원센터 「메르크말 세타가야」 3. ANAKUMA CAFE 하라주쿠점	1.주오대학 김형선 교수님 2.Yamasaki Kei, Takeaki Hirooka	일본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지원정책 및 사업 운영 현황, 서비스 연계체계 관련 사례 비교 분석 <방문 기관 별 활동 상황> 1. 일본의 지역사회 기반 교류공간인 「오카씨의 집」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생활권 중심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 세타가야구의 고립·은둔청년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과 초기상담, 이바쇼(居場所) 운영, 가족지원, 기관 간 연계, 공공·민간 역할분담, 재정구조, 성과관리 및 향후 정책방향 등이 논의됨. 3.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직접 근무하는 비대면 접객 카페 관찰 방문 진행.
11/10(화)	일본(도쿄)	1. 일반사단법인 케어러웍스 2. 오타구 청년서포트센터 「플랫 오오타」	1.Yumiko Tanaka 외 1인 2.Katayama Yumiko, Kato Motokasu	<방문 기관 별 활동 상황> 일본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지원정책 및 사업 운영 현황, 서비스 연계체계 관련 사례 비교 분석 1. 가족돌봄 아동·청년 발굴 및 지원, 동료지원, 이바쇼 운영, 자기돌봄, 공공·민간 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성과관리 논의 2. 청년종합상담, 이바쇼 운영, 단계별 자립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전문인력, 성과관리 및 생활권 지원단 운영방안 논의
11/11(수)	일본(도쿄)	1. NPO법인 UPTREE 2. 수도권 청년 서포트 네트워크/유즈리하(공동면담, 나가레루)	1.Mieko Akutsu 외 1인 2.Hanako Odagawa 외 1인	<방문 기관 별 활동 상황> 일본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지원정책 및 사업 운영 현황, 서비스 연계체계 관련 사례 비교 분석 1. 가족돌봄 아동·청년 발굴 및 지원, 이바쇼 운영, 가족 단위 지원, 동료지원가 활용, 민관협력체계, 성과관리 및 사업 지속가능성 논의 2.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년의 범위, 전문적인 상담 및 자립지원, 단계적 취업지원, 이바쇼 및 주거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정책 제안 및 민관협력체계 논의
11/12(목)	국가 간 이동	도쿄(나리타)-대한민국(인천)		귀국

2 출장 주요내용

①	국가 간 이동
일 시	2026.11.8.(일)
장 소	한국(인천) → 도쿄(나리타)
참석자	김성아 연구위원, 변소연 연구원
대한민국 인천공항 출국, 도쿄 나리타 입국	
②	세타가야 지역공생의 집 「오카씨의 집 TOMO」, 세타가야 청년종합지원센터 「메르크말 세타가야」, ANAKUMA CAFE 하라주쿠점
일 시	2026.11.9.(월)
장 소	도쿄(나리타)
참석자	김성아 연구위원, 변소연 연구원, 주오대학 김형선 교수님, 중앙청년미래센터 송지현 대리, 이혜니 대리, Yamasaki Kei, Takeaki Hirooka

세타가야 지역공생의 집 「오카씨의 집 TOMO」

□ 방문 목적: 일본의 지역사회 기반 교류공간인 「오카씨의 집」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생활권 중심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교류공간의 운영방식, 세대 간 교류, 청소년 및 시설퇴소 청년 지원사업, 공공·민간 협력체계, 재원조달과 조직의 지속가능성 등이 논의됨.

○ 특히 특정 지원대상자를 위한 전문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생활권 내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할 때 전문서비스로 연결하는 접근방식이 주요 논의

□ 「오카씨의 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기반으로 일상적인 관계형성과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다는 점임.

○ 일본의 이바쇼 사업은 특정 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음.

○ 특히 고립·은둔 위험이 있는 청소년과 보호시설 퇴소 청년의 경우 전문적인 상담이나 복지서비스에 앞서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과 지속적인 관계형성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의 생활권 지원단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 청년센터·사회복지관·민간단체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기능을 활용하면서, 청년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교류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오카씨의 집」은 개인의 주택 제공과 장기간의 주민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형성된 특수한 사례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전달체계 모형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생활권 지원체계의 접근성과 관계형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참고사례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민간단체의 자발성을 존중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지원, 전문인력 연계, 운영주체의 책임성, 성과관리체계 등을 함께 마련해야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ANAKUMA CAFE 하라주쿠점

세타가야 청년종합지원센터 「메르크말 세타가야」

□ 방문 목적: 일본의 고립·은둔청년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운영사례를 파악하고, 한국의 위기아동·청년 지원체계 및 생활권 지원단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대상자 발굴과 초기상담, 이바쇼(居場所) 운영, 가족지원, 기관 간 연계, 공공·민간 역할분담, 재정구조, 성과관리 및 향후 정책방향 등이 논의됨.

- 조기 발견과 조기 지원의 중요성: 고립·은둔 기간이 짧을수록 지원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좋으며, 장기화되기 전에 지원체계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함.
- 당사자의 의사와 속도를 존중하는 지원: 취업이나 사회참여를 일방적으로 권유하기보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당사자가 원하는 활동을 발견하도록 지원함.
- 가족지원의 필요성: 당사자보다 가족이 먼저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을 독립적인 지원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전문기관과 지역사회 공간의 연계: 전문 상담기관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이바쇼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장기적·질적 성과관리: 취업이나 복학 등 단기적 결과보다 관계 회복, 주체성 회복, 안전하게 머무를 공간 확보 등 점진적인 변화를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고립·은둔청년 지원에서 조기 발견, 당사자 중심의 상담, 가족지원, 지역사회 내 교류공간 확보, 전문기관 간 연계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확인함

○ 세타가야구의 지원체계는 취업이나 복학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요구하기보다,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사회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지역 내 다양한 이바쇼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과 선호에 맞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은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구조가 특징적

□ 한국의 위기아동·청년 지원체계 및 생활권 지원단 운영방안을 마련할 때에도 대상자의 자발성과 회복 속도를 존중하는 지원방식, 가족을 포함한 다층적 접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원공간 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원방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과 재정지원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단기적 실적에 치우치지 않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ANAKUMA CAFE 하라주쿠점

□ 비대면 접객 카페(관찰 방문)

○ (목적)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일자리 경험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접객 카페 방문을 통해 추후 한국에서 유사 사업 진행 시 참고하고자 함.

○ (운영 주체) 주식회사 OXSV

○ (개점 시기) 2022년 10월 5일

○ 주요 특징

- 벽면의 구멍을 통해 곰 인형 손으로 상품을 전달하는 비대면 접객
- 대면 근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향
- 고객과 근로자의 직접적인 대면을 줄이는 서비스 설계
- 상업적 카페 운영과 사회적 포용 가치의 결합

○ 정책적 검토사항

- 대면 접촉 부담을 낮추는 일자리 설계의 가능성
- 사회적 고립 경험자 등의 단계적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적용 가능성
- 포용적 고용의 선언적 목표와 실제 운영체계의 차이
- 일반 노동시장 내 사회적 포용모델의 확장 가능성

③	일반사단법인 케어러웍스, 오타구 청년서포트센터 「플랫 오오타」
일 시	2026.11.10.(화)
장 소	도쿄(나리타)
참석자	김성아 연구위원, 변소연 연구원, 주오대학 김형선 교수님, 중앙청년미래센터 송지현 대리, 이혜니 대리, Yumiko Tanaka 외 1인 Katayama Yumiko, Kato Motokasu

일반사단법인 케어러웍스

□ 방문목적: 일본의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사업 운영현황 파악 및 한국의 위기아동·청년 지원체계와 생활권 지원단 운영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가족돌봄 아동·청년 발굴 및 지원, 동료지원, 이바쇼 운영, 자기돌봄, 공공·민간 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성과관리 논의

□ 일본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Young Carer)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케어러웍스의 설립 배경과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음. 특히 돌봄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을 수행하는 아동·청년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 가족돌봄의 범위 확대: 신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가족의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형제자매 돌봄, 가계 유지 및 행정업무 등도 돌봄의 범주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당사자 중심의 지원: 돌봄부담 경감과 함께 자기돌봄, 심리적 회복, 학업 및 진로 지원 등 당사자 자신의 삶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동료지원 및 이바쇼의 중요성: 유사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마련해야 함.

○ 가구 단위의 통합적 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 개인뿐 아니라 돌봄대상자와 가족 전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연계해야 함.

○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 돌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실감, 경력단절, 사회적 관계 회복 등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지원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가족돌봄을 부정적인 경험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되, 당사자의 삶과 진로 선택을 제한하지 않는 지원체계가 필요함.

□ 이번 케어러웍스 방문을 통해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은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는 정책과 당사자의 삶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특히 케어러웍스는 가족돌봄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동료지원과 이바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음.

○ 또한 가족돌봄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당사자가 돌봄과 자신의 삶 사이에서 원하는 균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 한국의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돌봄대상자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 확대와 함께 당사자에 대한 자기돌봄, 심리상담, 학업·진로지원, 동료지원 및 휴식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 접근성 높은 지원공간을 확보하고, 전문인력과 동료지원가를 양성하며,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오타구 청년서포트센터 「플랫 오오타」

□ 방문목적: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지원체계 파악 및 지자체와 민간 전문기관 간 역할분담·협력방식에 대한 자문

○ 청년종합상담, 이바쇼 운영, 단계별 자립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전문인력, 성과관리 및 생활권 지원단 운영방안 논의

□ 일본 오타구의 청년종합상담센터인 플랫 오오타의 설립 배경과 운영체계, 청년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 및 이바쇼(居場所) 운영방식,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살펴보았음.

○ 플랫 오오타는 특정한 위기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만을 지원하기보다 생활, 경제, 가족관계, 정신건강, 학업 및 취업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이 접근할 수 있는 종합상담 창구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개별상담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운영하여 청년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인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방식이 주요 특징임.

- 종합상담 창구 운영: 위기 유형을 사전에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의 상담을 접수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계함.
- 생활권 중심의 지원대상 설정: 오타구 거주자뿐 아니라 관내 학교에 재학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15~39세 청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상담과 이바쇼의 결합: 상담을 목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청년이 휴식과 교류, 취미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원체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단계적 자립지원: 취업이나 취학만을 성과로 설정하지 않고 외출, 관계형성, 지역사회 활동 및 사회참여 등 자립과정을 10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함.
- 당사자의 자발성 존중: 비대면 상담 이용자에게 대면상담이나 외출을 강요하지 않고,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학교, 의료기관, 복지기관, 경찰, 취업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통해 복합적인 사례에 대응함.
- 장기 이용 및 출구전략 마련: 이용자의 지원 장기화와 연령기준 초과에 따른 지원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함.
- 공공·민간 협력: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설치하고 청년지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구조를 활용함.

□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정 위기 유형에 한정된 지원체계보다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종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특히 플랫 오오타는 종합상담 창구와 이바쇼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청년이 상담에 대한 부담 없이 지원체계에 접근하고, 종사자 및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취업이나 취학만을 지원의 최종목표로 설정하기보다 외출, 상담 참여, 관계형성 및 지역사회 활동 등 개인의 상태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성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위기청년 지원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다만 장기 이용자 증가, 정신건강 관련 전문지원 수요 확대, 종사자 확보의 어려움 및 연령기준에 따른 지원 단절 등은 플랫 오오타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음.**

□ **국내 생활권 지원단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운영상의 한계를 함께 고려하여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단계적 사회참여 프로그램, 장기 이용자에 대한 전환지원 및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④	NPO법인 UPTREE, 수도권 청년 서포트 네트워크 / 유즈리하(공동면담, 나가레루)
일 시	2026.11.11.(수)
장 소	도쿄(나리타)
참석자	김성아 연구위원, 변소연 연구원, 주오대학 김형선 교수님, 중앙청년미래센터 송지현 대리, 이혜니 대리, Mieko Akutsu 외 1인 Hanako Odagawa 외 1인

NPO법인 UPTREE

□ 방문목적: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사업 운영사례 파악 및 국내 생활권 지원단의 지원내용과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

○ 가족돌봄 아동·청년 발굴 및 지원, 이바쇼 운영, 가족 단위 지원, 동료지원가 활용, 민관협력체계, 성과관리 및 사업 지속가능성

□ 업트리의 주요 운영성과 및 한계

구분	주요 특징 및 성과	운영상 한계
대상자 발굴	가족지원 및 비대면 상담을 통한 접근	당사자의 낮은 자기인식 및 지원 요청의 어려움
가족지원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병행	가족의 공적 지원체계에 대한 불신
돌봄부담 경감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와의 연계	실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으로 연결되기 어려움
이바쇼	정기적인 활동을 통한 신뢰관계 형성	캠프 등 체험활동의 재원 부족
동료지원	가족돌봄 경험자의 이해와 공감 활용	지나친 조언 및 정서적 의존 가능성
비대면 상담	LINE 및 SNS를 통한 지속적인 관계형성	대면활동으로의 연계에 한계
성과관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형성을 중시	구체적인 정량평가체계 확인의 한계
전문인력	전문자격 보유자와 당사자 경험자의 협력	종사자의 소진 및 관계의 경계 설정 필요
지역사회 협력	사례회의 및 관계기관 연계	행정기관 간 분절적인 지원체계
지원 연속성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가족돌봄 지원	안정적인 장기지원 재원 확보 필요
재원 확보	공공·민간·자체 재원 활용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격차

□ 국내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정책영역	업트리 운영사례	국내 적용 및 검토과제
지원대상 정의	다양한 돌봄활동을 포괄적으로 인정	신체적 간병 외 정서적 돌봄, 가사 및 생계부담 고려
조기발견	부모·학교·SNS·관계기관을 활용한 접근	다각적인 발굴경로 및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
가족 단위 지원	부모 지원을 통해 아동·청년에게 접근	가족 전체의 욕구를 고려한 통합사례관리
돌봄부담 경감	공적 돌봄서비스 및 복지기관 연계	돌봄 대상 가족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
이바쇼 운영	바비큐 및 캠프 등 정기적인 활동	휴식·여가·체험 및 관계형성 프로그램 개발
동료지원가 선정	일정 수준의 자립과 사회생활 경험 고려	당사자 경험 외 지원역량 및 활동 준비도 평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동료지원가 역할	조언보다 경청과 정서적 지지	동료지원과 전문상담 간 역할 구분
동료지원가 처우	사업별 사례금 및 시급 지급	활동내용에 적합한 보수체계 마련
동료지원가 교육	경청 및 관계의 경계 설정 교육	표준교육과정, 전문인력 지도 및 사례회의 운영
비대면 상담	LINE 및 SNS를 통한 지속적인 접촉	비대면 상담 운영기준 및 위기대응체계 마련
성과관리	신뢰관계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증가	사회적 지지 및 일상생활 변화 관련 성과지표 개발
지원 연속성	연령 제한 없는 가족돌봄자 지원	아동·청년·중장년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 검토
공공·민간 협력	사례회의 및 민간기관의 정책 참여	공공의 책임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운영
사업 지속가능성	정기적인 활동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 추구	종사자 소진 방지와 지속적인 재정지원

□ **업트리 방문내용 중 국내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사업 및 생활권 지원단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우선 검토과제	세부 검토내용
① 가족돌봄의 정의	돌봄활동의 유형 및 수준, 정서적 돌봄의 인정범위
② 가족 단위 사례관리	부모 및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개입과 서비스 연계방안
③ 동료지원가 선정기준	가족돌봄 경험, 자립 수준, 활동 준비도 및 사회생활 경험
④ 동료지원가 운영지침	역할, 활동범위, 교육, 보수, 전문인력 지도 및 관계의 경계 설정
⑤ 이바쇼 운영방식	상설공간과 정기활동의 적절한 결합,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⑥ 비대면 상담 운영기준	상담시간, 응답방식, 개인정보 보호 및 위기대응
⑦ 성과관리 지표	돌봄부담 경감, 신뢰관계, 사회적 지지 및 일상생활 회복
⑧ 공공·민간 역할분담	청년미래센터, 생활권 지원단, 지자체 및 전문기관 간 역할
⑨ 사업 지속가능성	안정적인 재원 확보, 종사자 보호 및 지역 간 지원격차 완화

○ **특히 동료지원가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족돌봄 경험자가 다른 당사자를 지원하는 활동이 본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운 돌봄부담이나 정서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은 당사자 개인에 대한 상담 및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상황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이 스스로 자신의 어려움을 인식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할 때, 부모와 가족에 대한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협력, 비대면 상담 등 다양한 접근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업트리는 정기적인 바비큐와 캠프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청년이 가족돌봄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즐거움을 경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관계형성 중심의 접근은 국내 생활권 지원단의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음.**

○ **또한 가족돌봄 경험자를 동료지원가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경험 자체보다 활동 준비도와 사회생활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직접적인 조언보다는 경청과 정서적 지지를 중심으로 역할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시사점임.**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향후 국내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사업에서는 가족 단위의 사례관리체계, 동료지원가 운영지침, 관계형성 중심의 이바쇼 프로그램 및 안정적인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 청년 서포트 네트워크 / 유즈리하(공동면담, 나가레루)

□ 방문목적: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청년의 지원사례 파악 및 국내 위기아동·청년 지원체계 확대방안 자문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년의 범위, 전문적인 상담 및 자립지원, 단계적 취업지원, 이바쇼 및 주거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정책 제안 및 민관협력체계 논의

□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년뿐 아니라 학대, 빈곤, 부모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장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본의 민간기관 운영사례를 살펴보았음.

□ 유즈리하는 2011년부터 가족에게 의존하기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 생활지원, 학습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주거지원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해 왔음. 최근에는 기존 복지지원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간 갈등과 종사자 소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카페와 일시적인 숙박시설 등을 결합한 개방형 복합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 수도권 청년 서포트 네트워크는 개별 민간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재원 확보, 취업 연계 및 제도 개선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현장 실천가와 연구자, 생활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음.

○ 이번 면담의 핵심은 시설보호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생활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기반으로 단계적인 사회참여 및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임.

- 지원대상 확대: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년뿐 아니라 원가정에서 학대·방임 등을 경험하고 가족에게 의존하기 어려운 청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문적인 위기청년 지원: 일반 청년상담과 구분되는 트라우마 이해 및 전문적인 사례관리 역량이 필요함.
- 단계적 자립지원: 즉각적인 취업보다 생활안정, 심리적 회복, 보호된 환경에서의 일 경험 및 외부 사업장 연계 등을 단계적으로 제공함.
- 개방형 이바쇼 운영: 지원자와 피지원자만 존재하는 폐쇄적인 복지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 시민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
- 주거지원 강화: 긴급숙박부터 중장기 주거지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며, 주거안정을 자립의 기반으로 인식함.

- 지원연령의 유연성: 연령에 따른 일률적인 지원 종료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개별 기관의 현장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고 재원 확보, 기관 간 협력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함.
- 행정체계의 통합적 조정: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및 관계기관 간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년의 범위를 기존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년에 한정하기보다, 원가정에서 성장하였으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기 어려운 청년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 **특히 이러한 청년은 학대 및 방임 경험, 주거불안,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청년지원사업과 구분되는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

□ **유즈리하는 당사자의 생존과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익숙한 공간에서의 일 경험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이는 국내 위기청년 지원사업에서 취업을 단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기보다 생활안정과 회복을 자립의 선행조건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또한 기존 복지지원 공간에서 발생한 이용자 간 갈등과 종사자 소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시민도 이용하는 개방형 복합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생활권 지원단의 공간 및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음.**

□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긴급한 가족분리 및 주거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일시숙박시설뿐 아니라 충분한 회복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주거지원과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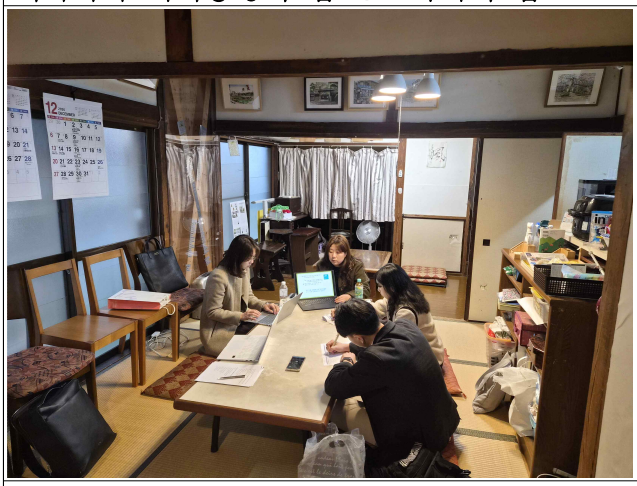
□ **아울러 수도권 청년 서포트 네트워크의 활동은 개별 현장기관의 경험을 정책과제로 연결하고, 안정적인 재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을 보여줌. 국내에서도 중앙청년미래센터가 현장기관에 대한 운영지원뿐 아니라 현장의 공통적인 문제를 수렴하고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⑤	국가 간 이동
일 시	2026.11.12.(목)
장 소	도쿄(나리타) → 한국(인천)
참석자	김성아 연구위원, 변소연 연구원
도쿄(나리타) 공항 출국, 대한민국 인천공항 입국	

3 출장 증빙 회의 현장 사진, 면담자 명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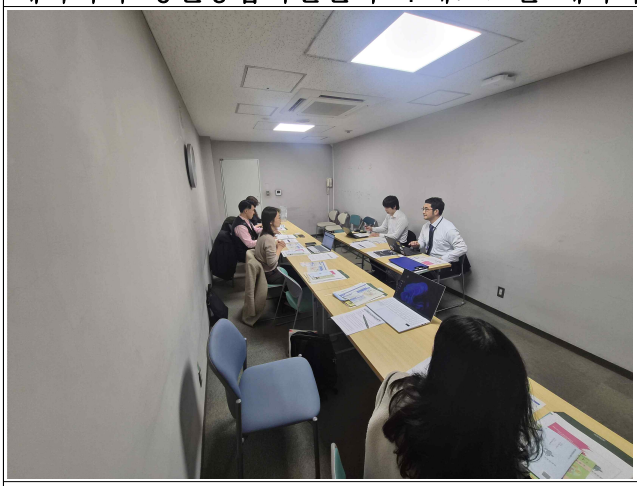
	11/9(월) 기관 방문 사진

세타가야 지역공생의 집 「오카씨의 집 TO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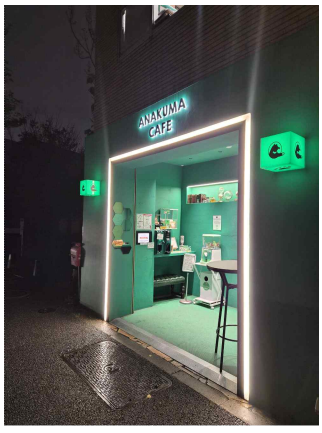


세타가야 청년종합지원센터 「메르크말 세타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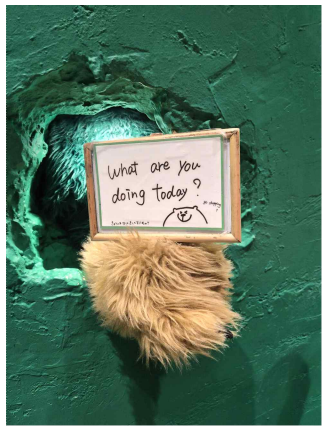




ANAKUMA CAFE 하라주쿠점







	11/10(화) 기관 방문 사진

일반사단법인 케어러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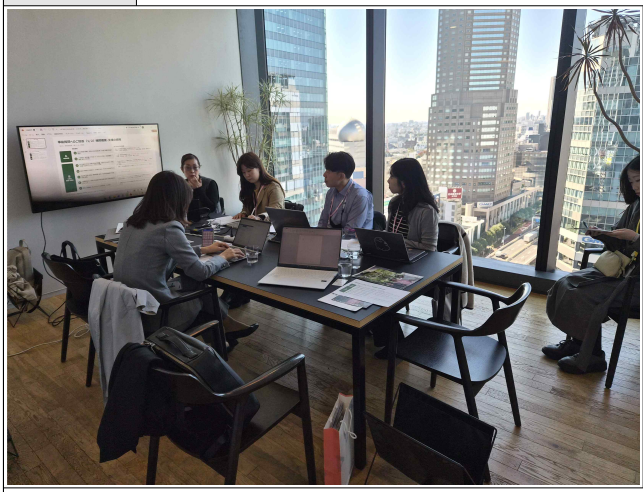
오타구 청년서포트센터 「플랫 오오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1/11(수) 기관 방문 사진
	NPO법인 UPTREE





수도권 청년 서포트 네트워크 / 유즈리하(공동면담, 나가레루)



